

# 남북 언어통합에 관한 연령층별 의식조사연구

조연주(부산외국어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맞아 통일 전에 통합을 고민하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북한말·북한인·언어통합에 대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세대 간 흐름에 맞는, 과정으로서의 언어통합 방안에 일조하기 위해 연령층별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간 언어 적응의 몫이 북한이탈주민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남북 언어통합의 공동주체로서 남북한인이 함께 협력의 길로 나아가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측면의 노력과 함께 일상에서 스며드는, 그리고 일상을 찾아가는 미시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 혹은 연령층별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남북 언어통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어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각적 협력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주제어: 남북 언어통합, 북한이탈주민, 언어 의식, 연령층, 통일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 3만 명<sup>1)</sup>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은 통일(unification)

전에 통합(integration)을 고민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소위 ‘미리 온 통일’이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문화, 언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합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거의 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매개체로 쓰이는 언어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사회 적응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 언어 적응 실태와 언어통합에 관한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 언어학적 관점에서 점차 그 시야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남북 언어 이질화의 초점을 어휘, 음운, 운율 등에 두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질성 회복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sup>2)</sup> 이에 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가 사회문화적 미숙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화법이나 화행을 고찰하려는 담화 중심 연구들도 일어나고 있다.<sup>3)</sup>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

- 
- 1)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31,093명이다.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self> (검색일: 2017년 12월 12일).
  - 2) 이현복, “북한말의 발음에 관한 음성학적 고찰,” 『새국어교육』, 제45권(1989); 김기호 외, “남북한 방송 언어의 운율 특성 비교 연구: 억양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제32권 3호(1996); 이용재 외, “남북한 방송언어의 음향-음성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모음의 음가를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28권 1호(1997); 신석환,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동질성 회복 방안,” 『사립어문연구』, 제11권 (1998); 김응모, “남한에서 북한어 교육,” 『교육논총』, 제2권(2000); 박시균·권병로, “남북한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 『국어문학』, 제38권(2003); 문금현, “남북한 어휘의 이질화 양상,” 『어문학』, 제3권(2004); 박종민·이창환 “한국어 분석 프로그램(KLIWC)을 이용한 남북한 방송극의 언어문화 구조 차이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2권 3호(2011); 신명선 외,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국립국어원 기획(서울: 박이정, 2012); 양수경,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권재일, “남북한어휘 단일화,” 『새국어생활』, 제25권 4호(2015) 등이 있다.

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sup>4)</sup> 정착을 돕기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의 과정과 교재들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시도들 가운데 은연중 드러나는 남한 중심의 시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표준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의 문제로만 협소하게 바라보고 남한 사회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북한말을 교정함으로써 통합을 이루려는 현실을 가리킨 것이다. 이에 대해 박종갑은 남한 사회에서 볼 때 북한말이 얼마나 이질적인가 하는 데서 벗어나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이 얼마나 생소할까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6)</sup>

차라리 외국서 살면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말도 새로 배우고, 사는 거 다시 배우는 거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도 한국말하고 얼

- 
- 3) 문금현,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제76권(2007), 141~172쪽; 이주랑, “북한이탈주민의 요청 화행 수행 양상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제은주,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거절화행 실현 양상 비교연구”(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전정미,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제43권(2017) 등이 있다.
  - 4) 본 논문에서는 북한과 대비되는 개념의 한국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 사회’, ‘한국인’, ‘한국어/한국말’보다 ‘남한 사회’, ‘남한인’, ‘남한어/남한말’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 5) 국립국어원이 기획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2012),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2013), ‘북한이탈주민 지원교사 연수교재’(2014) 혹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국어문화학교’ 안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북한이탈주민이 배우는 표준발음교실(<http://edu.korean.go.kr/dp/banner/pronounce/home.html>)’(검색일: 2017년 10월 29일) 등이 있다.
  - 6) 박종갑, “남북한 주민의 의사소통 장애요인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51권(2007).

갈도 같은데 ... 완전히 새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압박감이 상당히 큰 거예요.)<sup>7)</sup>

김현경 연구의 한 사례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언어 적응에 대해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양수경은 이러한 부담이 오롯이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주어져 있음을 주목하며 남북이 함께 언어통합을 위한 짐을 나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8)</sup> 권순희 또한 남한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적인 태도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남한인들에게도 북한이탈주민의 발음과 억양을 수용하려는 태도와 북한말을 하나의 지역 방언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실제로 차이가 나는 발음과 억양들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언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남북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닌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한말과 그 말의 화자인 북한인, 그리고 남북 언어통합에 대해 남한인은 어떤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통합의 주체로서 북한이탈주민과 상호 협력적 관계에 놓여 있는 남한인의 의식을 고찰하는 것은 남북 언어 통합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남한인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의식조사들이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

---

7) 김현경,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파주: KSI 한국학술정보(주), 2009), 134쪽.

8) 양수경,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9) 권순희,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현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4권 10호(2014).

거나 혹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본 설문은 13세 이상<sup>10)</sup>부터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조사의 폭을 넓혔는데, 이는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 의식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세대 간 흐름에 맞는 ‘과정으로서의 통일’<sup>11)</sup> 정책 수립에 일조하고자 함이다.

자세한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장에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설문의 결과를 분석한 후, 4장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언어 통합의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 보도록 하겠다.

## 2. 연구 대상과 방법

설문 조사는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구글(Google)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표집되었다. 아래 <표 1>은 설문 대상자의 인적 정보이다.

전체 응답 대상자 중 연령별로는 청소년층이 68명(33%)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과 중장년층도 각 67명(32.5%), 59명(28.6%)으로 비슷한 수가 참여했는데,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12명, 5.9%). 이는 본 설문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자가 155명(76%)이었고,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자가 57명(27.9%)으로 가장 많아

---

10) 일반적으로 14세 이상을 청소년으로 분류하나, 중학생 응답자 중 조기 입학의 경우 13세도 포함되어 있어 13세 이상으로 조사연령을 정하였다.

11) 2017년 7월 6일 베를린 쾰르버 재단 초청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문재인 「신(新) 한반도 평화 비전 연설문」(2017), 2쪽.

<표 1> 설문 대상자 인적 정보

N=206

	변인	빈도수(N)	퍼센트(%)
연령급간	청소년층(13~19세)	68	33
	청년층(20~39세)	67	32.5
	중장년층(40~59세)	59	28.6
	노년층(60세 이상)	12	5.9
	합계	206	100.0
성별	남자	49	24
	여자	155	76
	합계*	204	100.0
학력	무학력/초등학교 졸업	4	2
	중학교 졸업	57	27.9
	고등학교 졸업	40	19.6
	대학교 졸업	53	26
	대학원 재학/졸업	50	24.5
	합계*	205	100.0

\* 각 항목의 합계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이 고등학생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설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북한말에 대한 의식, 북한인에 대한 의식, 그리고 남북 언어통합에 대한 의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언어통합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언어와 화자 간 위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부연해, 한 언어에 대한 태도 속에는 언어 자체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사용자와 행동에 대한 태도도 담겨 있기 때문에, 언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화자에 대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고, 역으로 화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언어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말이다.<sup>12)</sup> 이처럼 언어의 위상과 화자의 위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것은 북한말과 북한인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어느 두 언어를 통합하려 할 때 양 언어 간 위상이 맞지 않는 불균형한 통합은, 실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용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는 동서독 언어통합 과정을 통해 이것을 잘 보아 왔다.<sup>13)</sup> 따라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남북 언어통합의 방향을 찾기 위해 현재 남한인들의 가지고 있는 북한말과 북한인에 대한 위상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만든 각 부분의 하위 문항은 <표 2>와 같다. 이 세 부분의 하위 문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북한말에 대한 의식’ 부분에서는 응답자들의 북한말과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교육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남쪽 및 북쪽 방언 구별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지역적 방언으로서 북한말에 대한 남한인들의 의식과 더불어 실제적인 방언 수용 능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아울러 통일 교육이나 언어통합 과정에서 교육 대상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한인들의 북한말 학습 의향을 물어보았다. 이어 ‘북한인에 대한 의식’ 부분에서는 평소 북한인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북한인을 인식하는 인지 경로와 인지 경로별 북한인에 대한 이미지 차이를 조사해 보았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깨기 위해 인지 경로

---

12) 강현석 외,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서울: 글로벨콘텐츠, 2014), 331쪽.

13) 김영길 외, “독일 통일 이후의 언어통합과정 연구,” 『독일어문학』, 제15권 (2001); 김해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 교육에의 시사점』(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최경은, “통일 이후 동서독 독일어의 통합과정,” 『독일어문학』, 제21권 9호(2003).

<표 2> 설문지 질문 문항 구성

구분	질문 내용	
북한말에 대한 의식	질문 1	귀하는 북한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다음 중 어느 범주로 분류하겠습니까?
	질문 3	귀하는 평소 표준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역 방언(사투리)을 사용합니까?
	질문 4	귀하는 남쪽 지역 방언을 듣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질문 5	귀하는 북쪽 지역 방언을 듣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질문 6	귀하의 북한말(어휘, 발음과 억양, 화행, 언어예절 등) 이해 정도는 어떻습니까?
	질문 7	북한이탈주민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북한말(어휘, 발음과 억양, 화행, 언어예절 등)을 배울 의향이 있습니까?
북한인에 대한 의식	질문 8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8-1	(8번 문항에서 '있다'를 선택한 경우)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질문 9	귀하는 북한 사람들을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9-1	(9번 문항에서 '있다'를 선택한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까?
	질문 9-2	(9번 문항에서 '있다'를 선택한 경우) 그 프로그램에서 북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질문 10	귀하는 평소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11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12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13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14	귀하는 기회가 닿으면 북한이탈주민과 만나거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질문 15	귀하는 기회가 닿으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공부하거나 일하고 싶습니까?
남북 언어통합에 대한 의식	질문 16	귀하는 통일이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질문 17	귀하는 언제쯤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18	북한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남북 언어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9	남북 언어 어느 영역의 통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20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21	남북 언어를 통합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22	남북 언어를 통합한다면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가 가진 영향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유의미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언어통합에 대한 의식’ 부분에서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는 것을 시발점으로, 통일 예상 시기, 언어통합의 필요성과 노력 시작 시기,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언어통합의 실제적 기준에 대한 남한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설문 문항들은 대부분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인에 대한 의식’처럼 좀 더 심층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주관식(자유 응답형)을 추가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객관식 항목은 SPSS 24에서 빈도 및 교차분석을 수행하였고, 주관식 항목은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중응답 변수 정의 시, 예를 들어 ‘귀하는 평소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낮설고 강하다’, ‘낮설고 순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 각각 ‘낮설다’, ‘강하다’, ‘순박하다’로 변수의 범주를 나누어 입력하였고, 장문 답변의 경우 해당 범주에 표기한 후 전체 내용을 논문에 인용하여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남북 언어통합의 공동주체인 남한인의 의식을, 소위 ‘통일세대’로 기대되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년, 장년, 노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도 밝힌 것처럼 설문 수집 결과 노년층의 응답자 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성별 비율에서도 편중치를 보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사결과를 남한인 전체의 의식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후 연령대별 의식을 좀 더 폭넓고 정확하게 반영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 남북 언어통합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3. 연령층별 의식 조사 결과

#### 1) 북한말에 대한 의식

먼저 북한말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3>과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남한인의 상당수가 북한말을 ‘함경도 방언이나 평안도 방언 같은 지역 방언의 하나로 생각’(94명, 45.9%)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방언 화자의 표준어교육’(92명, 45.3%)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가 북한말을 지역 방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뽕뽕그려 북한말로 받아들인다고 답하였고(81명, 39.5%), 특히 청년층은 가장 많은 수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명, 16.1%).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다민족 대상의) 한국어교육’으로 보

<표 3> 북한말에 대한 태도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남한말과 차이가 없는 한 민족 언어	함경도 방언이나 평안도 방언 같은 지역 방언의 하나로 생각	함경도 방언이든 평안도 방언이든 모두 북한말로 뽕뽕그려 생각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로 생각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12(5.9)	33(16.1)	22(10.7)	1(0.5)	68(33.2)
청년층	67	4(2.0)	28(13.7)	33(16.1)	2(1.0)	67(32.7)
중장년층	59	6(2.9)	30(14.6)	23(11.2)	0(0.0)	59(28.8)
노년층	12	5(2.4)	3(1.5)	3(1.5)	0(0.0)	11(5.4)
합계	206	27(13.2)	94(45.9)	81(39.5)	3(1.5)	205(100.0)

문 1: 귀하는 북한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 4>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 분류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국어교육	(다민족 대상의) 한국어교육	방언 화자의 표준어교육	외국어 교육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12(5.9)	28(13.8)	26(12.8)	2(1.0)	68(33.5)
청년층	67	9(4.4)	26(12.8)	31(15.3)	1(0.5)	67(33.0)
중장년층	59	12(5.9)	15(7.4)	30(14.8)	0(0.0)	57(28.1)
노년층	12	4(2.0)	2(1.0)	5(2.5)	0(0.0)	11(5.4)
합계	206	37(18.2)	71(35.0)	92(45.3)	3(1.5)	203(100.0)

문 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을 다음 중 어느 범주로 분류하겠습니까?

는 시선은 71명(35%)으로 ‘표준어교육’의 뒤를 이었고, ‘국어교육’은 37명(18.2%)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이 국어와 한국어교육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sup>14)</sup>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남한 사회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저해 요소 들어휘, 발음과 억양 등이 더 가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어교육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표 26> 남북 언어통합 필요 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을 분류하는 시선이 응답자의 사용언어(표준어, 방언, 둘 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표 5>, <표 5-1>와 같이 교차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표준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표준어와 방언 둘 다 사용하는 화자들의 경우 ‘방언 화자의 표준어 교육’이 가장 높았으나, 방언만을 사용하는 화자의 경우 ‘(다민족 대상의) 한국어교육’이 29명(14.4%)으로 ‘방언 화자의 표준어 교육’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준어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

14) 신명선 외,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국립국어원 기획(서울: 박이정, 2012).

<표 5> 표준어/방언 사용 여부

N=206

구분	표준어	방언	둘 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빈도수(N)	62	64	78	잘못된 계산식
퍼센트(%)	30.4	31.4	38.2	잘못된 계산식.0

문 3: 귀하는 평소 표준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지역 방언(사투리)을 사용합니까?

<표 5-1> 표준어/방언 화자의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육분류

단위: 명(%)

구분	국어교육	(다민족 대상의) 한국어교육	방언 화자의 표준어교육	외국어교육	합계 (무응답자 제외)
표준어 사용	15(7.4)	19(9.4)	27(13.4)	0(0.0)	61(30.2)
방언 사용	10(5.0)	29(14.4)	23(11.4)	2(1.0)	64(31.7)
둘 다 사용	12(5.9)	22(10.9)	42(20.8)	1(0.5)	77(38.1)
합계	37(18.3)	70(34.7)	92(45.5)	3(1.5)	202(100.0)

는 화자들에 비해, 지역 방언만을 사용하는 화자의 경우 표준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북한이탈주민들의 언어교육을 표준어교육이 아닌 한국어교육으로 분류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남한인들은 북한말에 대해, 그리고 그 말의 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에 대해 대부분 지역 방언과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 북쪽 방언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 6>과 <표 7>은 남한인들의 남쪽 방언 구별 능력과 북쪽 방언 구별 능력의 응답 결과인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남쪽 방언 구별 능력은 모든 연령층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119명, 5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50명,

<표 6> 남쪽 방언 구별 정도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8(3.9)	32(15.6)	21(10.2)	7(3.4)	68(33.2)
청년층	67	15(7.3)	45(22.0)	5(2.4)	2(1.0)	67(32.7)
중장년층	59	23(11.2)	35(17.1)	1(0.5)	0(0.0)	59(28.8)
노년층	12	4(2.0)	7(3.4)	0(0.0)	0(0.0)	11(5.4)
합계	206	50(24.4)	119(58)	27(13.2)	9(4.4)	205(100.0)

문 4: 귀하는 남쪽 지역 방언을 듣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표 7> 북쪽 방언 구별 정도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1(0.5)	10(4.9)	17(8.3)	40(19.6)	68(33.3)
청년층	67	0(0.0)	6(2.9)	27(13.2)	33(16.2)	66(32.4)
중장년층	59	1(0.5)	12(5.9)	25(12.3)	21(10.3)	59(28.9)
노년층	12	1(0.5)	3(1.5)	4(2.0)	3(1.5)	11(5.4)
합계	206	3(1.5)	31(15.2)	73(35.8)	97(47.5)	204(100.0)

문 5: 귀하는 북쪽 지역 방언을 듣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24.4%)가 그 뒤를 이어 전체의 82.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북쪽 방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97명, 47.5%)라고 답한 이가 제일 많았다. ‘별로 그렇지 않다’(73명, 35.8%)라는 답변을 포함하면 83.3%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북한말의 이해 정도(<표 8>)에서도, 노년층과 청소년층은 ‘조금 아

<표 8> 북한말 이해 정도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잘 안다	조금 아는 편이다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0(0.0)	34(16.6)	26(12.7)	8(3.9)	68(33.2)
청년층	67	1(0.5)	23(11.2)	38(18.5)	5(2.4)	67(32.7)
중장년층	59	1(0.5)	25(12.2)	29(14.1)	4(2.0)	59(28.8)
노년층	12	1(0.5)	6(2.9)	4(2.0)	0(0.0)	11(5.4)
합계	206	3(1.5)	88(42.9)	97(47.3)	17(8.3)	205(100.0)

문 6. 귀하의 북한말(어휘, 발음과 억양, 화행, 언어예절 등) 이해 정도는 어떻습니까?

는 편이다'에 가장 많은 답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모른다'가 97명(47.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한인들이 북한말을 지역적 방언으로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방언들에 익숙하지 않아 모두 몽뚱그려 북한말로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양수경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는 언어 적응 문제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 타자화 문제'로 대변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심리적 타자화 문제'란 단순히 지역 방언 화자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분단 방언인 '북한어 화자'로 인식되는 데서 기인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소외감을 말하는 것이다.<sup>15)</sup> 남한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발음과 억양에 귀를 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소외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 사람들의 북한말에 대한 의식과 실제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15) 양수경,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17쪽.

<표 9> 북한말 학습 의향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10(4.9)	36(17.6)	18(8.8)	3(1.5)	67(32.8)
청년층	67	11(5.4)	34(16.7)	19(9.3)	3(1.5)	67(32.8)
중장년층	59	9(4.4)	30(14.7)	20(9.8)	0(0.0)	59(28.9)
노년층	12	1(0.5)	3(1.5)	7(3.4)	0(0.0)	11(5.4)
합계	206	31(15.2)	103(50.5)	64(31.4)	6(2.9)	204(100.0)

문 7: 북한이탈주민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북한말(어휘, 발음과 억양, 화행, 언어예절 등)을 배울 의향이 있습니까?

<표 9>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인들의 북한말 학습에 대한 의향을 묻은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매우 그렇다’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5.7%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것이나,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지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연령층별로 최다 응답만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에서 보이듯 ‘남쪽 방언 구별 정도’(질문 4)를 제외하고는, 북한말에 대해 연령층별로 조금 상이한 의식을 보여준다. 그중 ‘북한말에 대한 평소 의식’(질문 1)을 보면, 청소년층과 중장년층은 ‘지역 방언의 하나’로, 청년층은 ‘몽둥그러 북한말’로, 노년층은 ‘남한말과 차이가 없는 한 민족 언어’로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 의식과 실제 인식 간의 격차, 즉 평소 북한말에 대한 생각과 실제 인지 능력 간의 차이를 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은 서로 반대의 의미에서 그 격차가 적어 보인다. 먼저 청년층은 북쪽 방언을 전혀 구별할 수 없고 북한말에 대한 이해

<표 10> 연령층별 최다 응답(1)

질문 내용 요약*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전체**
북한말에 대한 의식	질문 1 평소 의식	지역 방언의 하나	똥똥그려 북한말	지역 방언의 하나	남한말과 차이가 없는 한 민족 언어	지역 방언의 하나
	질문 2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 분류	다 민족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언 화자의 표준어 교육	방언 화자의 표준어 교육	방언 화자의 표준어 교육	방언 화자의 표준어 교육
	질문 4 남쪽 방언 구별 정도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질문 5 북쪽 방언 구별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질문 6 북한말 이해 정도	조금 아는 편이다	거의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아는 편이다	거의 모른다
	질문 7 북한말 학습 의향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 전체 질문 내용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비교를 위해 전체 응답자 중 최다 응답도 제공하였다.

도 거의 없다고 답했고 그래서 북한인의 말을 모두 북한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노년층은 북쪽 방언 구별 능력은 좀 약하지만, 북한말을 조금 아는 편이고 심지어 같은 민족 언어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북한말 학습 의향도 높지 않다. 요약하면 청년층은 대체로 일관되게 북한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말로, 노년층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한 민족 언어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청소년층과 중장년층은 북한말을 방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는 하나 북쪽 방언을 구별하는 능력이나 북한말의 이해도는 낮아 실제로는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똥똥그려 북한말로 인식할 가능



성이 커 보인다.

그 외에도 응답 간 층들을 보이는 경우를 청소년층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 응답자가 북한말을 ‘지역 방언의 하나’로 본다고 답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은 ‘(다민족 대상의) 한국어 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어 혼동을 준다. 지역 방언으로 보고 있다면 이들의 교육은 표준어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인과의 접촉 여부가 이러한 모순적인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북한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간에 의식 차이를 추가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총 68명의 청소년 중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1명,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명인데, 전자의 경우 80%가 북한말을 ‘지역 방언의 하나’(‘몽퐁그려 북한말’은 20%)로 보고 45.4%가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표준어교육’(‘한국어교육’은 36.3%)으로 분류하였고, 후자의 경우 43.8%가 북한말을 ‘지역 방언의 하나’(‘몽퐁그려 북한말’은 33.3%)로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에 대해서는 42.8%가 ‘한국어교육’(‘표준어교육’은 36.7%)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북한인과 직접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북한말을 지역 방언으로 보는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80% > 43.8%),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에 대해서는 접촉 학생의 경우 ‘방언 화자의 표준어교육’에 가장 많은 수가 답했으나, 접촉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다민족 대상의) 한국어교육’으로 바라보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만남’의 여부가 의식과 인식의 차를 좁히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어느 정도 북한말 학습에 열린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추후 언어통합, 혹은 통일 교육의 일환으로

서 언어 교육의 ‘대상’을 논의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북한인에 대한 의식

이 설문 범주에서 남한인의 평소 북한인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룬 것은, 인지 경로가 그러한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남한인이 북한말을 인지하는 주된 경로로 알려진 ‘방송 매체’의 상위 세 유형[‘드라마나 영화’(64.4%),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59.5%),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57.9%)] 속 북한인의 모습을 조사해 보았다.<sup>16)</sup> 먼저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여부(<표 11>)를 살펴보면, 조사결과 응답자 전체의 31.2%가 북한인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약 3명 중 1명 정도가 북한인을 만난 경험이

<표 11> 북한이탈주민 접촉 여부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있다	없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11(5.4)	57(27.8)	68(33.2)
청년층	67	27(13.2)	40(19.5)	67(32.7)
중장년층	59	22(10.7)	37(18.0)	59(28.8)
노년층	12	4(2.0)	7(3.4)	11(5.4)
합 계	206	64(31.2)	141(68.8)	205(100.0)

문 8: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16)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2016), 23쪽.

<표 12> 북한이탈주민 접촉 장소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종교단체	학교나 일터	동네	사회단체	기타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3(4.5)	8(11.9)	0(0.0)	1(1.5)	0(0.0)	11(16.4)
청년층	67	8(11.9)	13(19.4)	2(3.0)	3(4.5)	3(4.5)	27(40.3)
중장년층	59	12(17.9)	8(11.9)	3(4.5)	4(6.0)	1(1.5)	25(37.3)
노년층	12	2(3.0)	1(1.5)	0(0.0)	1(1.5)	0(0.0)	4(6.0)
합계	206	25(37.3)	30(44.8)	5(7.5)	9(13.4)	4(6.0)	67(100.0)

문 8-1: (8번 문항에서 '있다'를 선택한 경우) 어디에서 만났습니까?(복수응답 가능)

있다는 말이다. 어디에서 만났는지, 접촉 장소에 관한 질문은 주관식 답변을 통해 들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접하는 장소로는 '학교나 일터'(30명, 44.8%)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교단체'(25명, 37.3%)가 차지했다. '기타'의 답변으로는 '해외'(2명), '강연장'(1명), '택시'(1명) 등이 있어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과 잦은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에 속한 남한인 중 북한말어휘나 화행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이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북한말을 모르면, 이들에게 남한말이 얼마나 이질적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또 정착을 위한 남한말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4장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 절 서두에서 밝힌 주된 인지 경로로서 방송 매체 속 북한인(<표 13>)에 관해 살펴보겠다.

<표 13> 방송 매체에 등장한 북한인을 본 경험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있다	없다	합 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64(31.8)	4(2.0)	68(33.8)
청년층	67	60(29.9)	4(2.0)	64(31.8)
중장년층	59	56(27.9)	2(1.0)	58(28.9)
노년층	12	11(5.5)	0(0.0)	11(5.5)
합 계	206	191(95.0)	10(5.0)	201(100.0)

문 9: 귀하는 북한 사람들을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표 14> 북한인 출연 방송 매체 종류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드라마나 영화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기타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16(8.5)	53(28.2)	28(14.9)	2(1.1)	61(32.4)
청년층	67	9(4.8)	48(25.5)	30(16.0)	1(0.5)	60(31.9)
중장년층	59	10(5.3)	50(26.6)	19(10.1)	1(0.5)	57(30.3)
노년층	12	0(0.0)	6(3.2)	6(3.2)	0(0.0)	10(5.3)
합계	206	35(18.6)	157(83.5)	83(44.1)	4(2.1)	188(100.0)

문 9-1: (9번 문항에서 '있다'를 선택한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까?(복수응답 가능)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접촉한 적은 없을지라도 방송 매체를 통해 본 경우는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남한인의 대부분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인을 보고 북한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 매체 종류(<표 14>)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의 보고서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드라마나 영화'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이 157명(83.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

<표 15> 방송 매체 속 북한인의 모습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군인	간첩	가상결혼 배우자	토크쇼 출연자	노동자	(북한) 뉴스 진행자	기타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16 (8.4)	9 (4.7)	22 (11.5)	52 (27.2)	8 (4.2)	25 (13.1)	3 (1.6)	63 (33.0)
청년층	67	10 (5.2)	5 (2.6)	16 (8.4)	50 (26.2)	11 (5.8)	22 (11.5)	2 (1.0)	60 (31.4)
중장년층	59	12 (6.3)	6 (3.1)	15 (7.9)	42 (22.0)	9 (4.7)	14 (7.3)	3 (1.6)	57 (29.8)
노년층	12	1 (0.5)	0 (0.0)	1 (0.5)	10 (5.2)	0 (0.0)	3 (1.6)	0 (0.0)	11 (5.8)
합계	206	39 (20.4)	20 (10.5)	54 (28.3)	154 (80.6)	28 (14.7)	64 (33.5)	8 (4.2)	191 (100.0)

문 9-2: (9번 문항에서 '있다'를 선택한 경우) 그 프로그램에서 북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다.17) 그 이유는 본 조사가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비해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문항에 답한 61명의 청소년 중 53명이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을 인지 경로로 꼽았다. ‘기타’의 답변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이 있었다.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의 모습(<표 15>)은 ‘토크쇼 출연자’가 154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결혼 배우자’(54명, 28.3%)가 그 뒤를 이었는데, <표 14>에서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과거 ‘남북의 창’ 등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뉴스 진행자나 ‘군인’의 모습을 주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학생’, ‘주부’,

17)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23쪽.

<표 16> 북한인에 대한 평소 의식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불쌍하다/안타깝다	낯설다	강하다	순박하다	비슷하다/친근하다	재미있다	무섭다	기타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4 (2.0)	32 (16.1)	3 (1.5)	6 (3.0)	7 (3.5)	1 (0.5)	6 (3.0)	11 (5.5)	64 (32.2)
청년층	67	9 (4.5)	38 (19.1)	4 (2.0)	7 (3.5)	9 (4.5)	0 (0.0)	10 (5.0)	11 (5.5)	67 (33.7)
중장년층	59	7 (3.5)	21 (10.6)	15 (7.5)	16 (8.0)	4 (2.0)	2 (1.0)	3 (1.5)	4 (2.0)	58 (29.1)
노년층	12	0 (0.0)	3 (1.5)	4 (2.0)	6 (3.0)	1 (0.5)	0 (0.0)	2 (1.0)	0 (0.0)	10 (5.0)
합계	206	20 (10.1)	94 (47.2)	26 (13.1)	35 (17.6)	21 (10.6)	3 (1.5)	21 (10.6)	26 (13.1)	199 (100.0)

문 10: 귀하는 평소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복수응답 가능)

‘탈북민’, ‘꽃거지’, ‘유튜버’ 등이 있었는데, 토크쇼나 가상결혼 배우자 등 방송 출연자로서 정해진 모습에 비해 ‘학생’이나 ‘주부’ 등 북한이탈 주민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은 방송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선 이들에 대한 ‘평소 의식(<표 16>)’을 살펴보고 이어서 ‘드라마나 영화’(<표 17>),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표 18>),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표 19>) 순서로 고찰해 보겠다.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인들의 북한인에 대한 평소 의식은 ‘낯설다’라는 답변이 94명(47.2%)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순박하다(35명, 17.6%)-강하다(26명, 13.1%)-불쌍하다/안타깝다(20명, 10.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별(아무)생각이 없다’, ‘경계심이 강하다’, ‘직설적이다’, ‘재미있다’ 등이 있었다.

양수경은 남한의 낯선 사회·문화적 배경의 어휘들과 담화 상황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지속적으로 불안과 긴장,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이질적인 것이라 하였는데,<sup>18)</sup> 이런 것이 ‘경계심이 강한’ 사람들로 보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직설적이다’라는 응답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바, 빈말을 하거나 돌려 말하는 것보다 직접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북한식 화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다음은 기타 의견 중 하나로 한 청소년이 남긴 답변이다.

외국인 같은 느낌은 없으면서도 우리와 생활 모습과 문화가 많이 다른 곳에서 왔으니 대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렵다고 가끔 느낀다. 말이 잘 통해서 친근하면서도 뭔가 북한이 좋지 못한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탈북이나, 북한, 우리나라(남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한테는 고향 국가인데 우리에게 썩 좋은 나라가 아니니(사례 156번, 청소년층, 여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며 일상을 공유해 가는, 오늘날 남북 청소년들의 관계 속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남한 청소년들 역시 너무 준비 없이 서로를 만나게 된 것은 아닐까 싶다. 남북 청소년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사회가 서로 연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18) 양수경,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19) 문금현,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전정미,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사용 양상 연구”; 이주랑, “북한이탈주민의 요청 화행 수행 양상에 대한 연구”; 제은주,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거절화행 실현 양상 비교연구”; 전정미,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등을 참조.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 방송 매체로 대표되는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커 보인다. 국립국어원 조사<sup>20)</sup>에서는 일반인들의 북한말에 대한 태도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편향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상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방안으로,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북한 드라마나 영화를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이 정말로 남한인들의 북한인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7>, <표 18>, <표 19>와 같다.

<표 17> ‘드라마나 영화’ 속 북한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불쌍하다/안타깝다	낮설다	강하다	순박하다	(남한인과의) 비슷하다/친근하다	재미있다	무섭다	기타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8 (4.5)	8 (4.5)	11 (6.2)	6 (3.4)	1 (0.6)	3 (1.7)	12 (6.7)	10 (5.6)	53 (29.8)
청년층	67	7 (3.9)	15 (8.4)	16 (9.0)	8 (4.5)	4 (2.2)	0 (0.0)	19 (10.7)	9 (5.1)	61 (34.3)
중장년층	59	4 (2.2)	13 (7.3)	25 (14.0)	8 (4.5)	5 (2.8)	0 (0.0)	9 (5.1)	2 (1.1)	55 (30.9)
노년층	12	0 (0.0)	5 (2.8)	5 (2.8)	1 (0.6)	0 (0.0)	0 (0.0)	1 (0.6)	0 (0.0)	9 (5.1)
합계	206	19 (10.7)	41 (23.0)	57 (32.0)	23 (12.9)	10 (5.6)	3 (1.7)	41 (23.0)	21 (11.8)	178 (100.0)

문 11: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복수응답 가능)

20)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41쪽.



<표 18>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 속 북한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불쌍하다/안타깝다	낮설다	강하다	순박하다	(남한인과 비슷하다/친근하다)	재미있다	무섭다	기타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4 (2.2)	16 (8.8)	4 (2.2)	5 (2.8)	19 (10.5)	9 (5.0)	0 (0.0)	8 (4.4)	53 (29.3)
청년층	67	5 (2.8)	13 (7.2)	5 (2.8)	7 (3.9)	20 (11.0)	17 (9.4)	1 (0.6)	8 (4.4)	63 (34.8)
중장년층	59	1 (0.6)	6 (3.3)	12 (6.6)	11 (6.1)	18 (9.9)	13 (7.2)	1 (0.6)	8 (4.4)	55 (30.4)
노년층	12	0 (0.0)	4 (2.2)	1 (0.6)	2 (1.1)	4 (2.2)	1 (0.6)	1 (0.6)	0 (0.0)	10 (5.5)
합계	206	10 (5.5)	39 (21.5)	22 (12.2)	25 (13.8)	61 (33.7)	40 (22.1)	3 (1.7)	24 (13.3)	181 (100.0)

문 12: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복수응답 가능)

<표 19>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속 북한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불쌍하다/안타깝다	낮설다	강하다	순박하다	(남한인과 비슷하다/친근하다)	재미있다	무섭다	기타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6 (3.6)	16 (9.5)	5 (3.0)	1 (0.6)	0 (0.0)	1 (0.6)	11 (6.5)	11 (6.5)	45 (26.6)
청년층	67	9 (5.3)	16 (9.5)	10 (5.9)	0 (0.0)	3 (1.8)	0 (0.0)	15 (8.9)	12 (7.1)	61 (36.1)
중장년층	59	9 (5.3)	13 (7.7)	15 (8.9)	4 (2.4)	5 (3.0)	0 (0.0)	10 (5.9)	4 (2.4)	53 (31.4)
노년층	12	0 (0.0)	4 (2.4)	5 (3.0)	0 (0.0)	1 (0.6)	0 (0.0)	2 (1.2)	0 (0.0)	10 (5.9)
합계	206	24(14.2)	49 (29.0)	35 (20.7)	5 (3.0)	9 (5.3)	1 (0.6)	38 (22.5)	27 (16.0)	169 (100.0)

문 13: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복수응답 가능)

결과부터 요약하면, ‘드라마나 영화 속 북한인’에 대해서는 ‘강하다(32%)-낮설다(23%) / 무섭다(23%)-순박하다(12.9%)-불쌍하다(10.7%)-비슷하다 / 친근하다(5.6%)-재미있다(1.7%)’ 순서였으며,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 속 북한인’에 대해서는 ‘비슷하다 / 친근하다(33.7%)-재미있다(22.1%)-낮설다(21.5%)-순박하다(13.8%)-강하다(12.2%)-불쌍하다(5.5%)-무섭다(1.7%)’, 그리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속 북한인’에 대해서는 ‘낮설다(29.0%)-무섭다(22.5%)-강하다(20.7%)-불쌍하다(14.2%)-비슷하다/친근하다(5.3%)-순박하다(3.0%)-재미있다(0.6%)’ 순서로 나타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인의 모습을 접하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이미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 의견 중에도 이러한 인식의 왜곡이나 편향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다음은 그 일부다.

미디어에선 주로 북한군, 간첩 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낮설고 무섭다(사례 66번, 청년층, 남자).

보통 드라마의 역할에서 북한 사람들은 친근한 이미지보다 간첩이나 사기꾼, 혼인 빙자하는 역할이 주된 배역이라 인상이 강하고 무섭다(사례 95번, 중장년층, 여자).

과장된 건 아닐까 생각한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북한은 민간인들보다 군인들이 지배적이어서 군사국가의 이미지가 강한 것 같다(사례 156번, 청소년층, 여자).

불우하게 나와서 불쌍하다. 또 한편으로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표 20> 북한이탈주민과 관계에 대한 인식: 친구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8(3.9)	41(20.0)	12(5.9)	7(3.4)	68(33.2)
청년층	67	15(7.3)	32(15.6)	16(7.8)	4(2.0)	67(32.7)
중장년층	59	9(4.4)	31(15.1)	17(8.3)	2(1.0)	59(28.8)
노년층	12	2(1.0)	6(2.9)	3(1.5)	0(0.0)	11(5.4)
합계	206	34(16.6)	110(53.7)	48(23.4)	13(6.3)	205(100.0)

문 14: 귀하는 기회가 닿으면 북한이탈주민과 만나거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불 때는 별로 좋지 않다. 나쁘다는 생각이 든다. 싫다(사례 157번, 청소년층, 여자).

사람은 언어로만 전달받는 것보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적절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신뢰성은 미디어의 진정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sup>21)</sup> 비록 드라마나 영화 등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할지라도) 허구의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되는 매체이긴 하나, 미디어가 보는 이들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북한인의 모습을 편견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방송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겠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친구가 되거나(<표 20>)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협력할 의향을 묻는 질문(<표 21>)에 대해서는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어느 정도 그렇다’(각 53.7%, 49.0%)로 두 영역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3만여 명의 탈북민들

21) 이성만, 『미디어 언어의 텍스트 화용론』(경진, 2012).

<표 21> 북한이탈주민과 관계에 대한 인식: 동료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11(5.4)	37(18.1)	15(7.4)	5(2.5)	68(33.3)
청년층	67	18(8.8)	25(12.3)	18(8.8)	5(2.5)	66(32.4)
중장년층	59	9(4.4)	31(15.2)	15(7.4)	4(2.0)	59(28.9)
노년층	12	2(1.0)	7(3.4)	1(0.5)	1(0.5)	11(5.4)
합계	206	40(19.6)	100(49.0)	49(24.0)	15(7.4)	204(100.0)

문 15: 귀하는 기회가 닿으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공부하거나 일하고 싶습니까?

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통합을 이뤄나가는 현시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연령층별 최다 응답만을 모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설문지 세 범주를 통틀어 총 25개 문항 중 10개에 대해 전 연령층이 한목소리를 냈는데(1, 2위 동일 답변 포함), 유독 이 범주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답변이 많았다. 그런 답변들을 한 문항씩 살펴보면 아직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난 사람(질문 8)보다는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질문 9)이 더 많았고, 대부분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질문 9-1)에서 토크쇼 출연자(질문 9-2)로 등장한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보고 남한인과 비슷하고 친근하게(질문 12) 느꼈으며, 함께 친구로 지내거나(질문 14) 학교 혹은 일터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것(질문 15)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접촉 장소는 연령층 하위 두 집단과 상위 두 집단이 달랐는데, 청소년과 청년층은 학교나 일터에서 가장 많이 탈북민을 만난다고 답하였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종교 집단을 꼽았다.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표 22> 연령층별 최다 응답(2)

질문 내용 요약*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전체**
질문 8 직접 접촉 여부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질문 8-1 접촉 장소	학교나 일터	학교나 일터	종교단체	종교단체	학교나 일터
질문 9 간접인지 여부(방송 매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질문 9-1 방송 매체 종류	예능이나 오락	예능이나 오락	예능이나 오락	예능이나 오락 =뉴스나 시사	예능이나 오락
질문 9-2 방송 매체 속 북한인의 모습	토크쇼 출연자	토크쇼 출연자	토크쇼 출연자	토크쇼 출연자	토크쇼 출연자
질문 10 평소 의식	낮설다	낮설다	낮설다	순박하다	낮설다
질문 11 드라마·영화 속 북한인 모습	무섭다	무섭다	강하다	낮설다 =강하다	강하다
질문 12 예능·오락 속 북한인 모습	비슷하다· 친근하다	비슷하다· 친근하다	비슷하다· 친근하다	비슷하다· 친근하다 =낮설다	비슷하다·친 근하다
질문 13 뉴스·시사 속 북한인 모습	낮설다	낮설다	강하다	강하다	낮설다
질문 14 친구 관계 - 사귄 의향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질문 15 공부·일 관계 - 동역 의향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 전체 질문 내용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비교를 위해 전체 응답자 중 최다 응답도 제공하였다.

중장년층이 대부분 일터에서 탈북민을 만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였다. 응답자의 성별 편중치(여성 76%, 남자 24%)나 직업군 등이 변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접촉 장소, 즉 만남의 지점에 대해 좀 더 정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방송 유형에 따라 연령층별 느낌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긍정적인 평가(‘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 속 북한인 모습)와 부정적인 평가(‘드라마나 영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속 북한인 모습)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맥을 같이했다. 요약하건대, 북한인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전 연령층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남북 언어통합에 대한 의식

끝으로 이 절에서는 남북 언어통합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하겠다. 우선 통일을 희망하느냐는 물음(<표 23>)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가 각각 40.5%로, 전체의 81%를 차지하

<표 23> 통일 희망 정도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18(8.8)	31(15.1)	18(8.8)	1(0.5)	68(33.2)
청년층	67	27(13.2)	27(13.2)	10(4.9)	3(1.5)	67(32.7)
중장년층	59	32(15.6)	20(9.8)	7(3.4)	0(0.0)	59(28.8)
노년층	12	6(2.9)	5(2.4)	0(0.0)	0(0.0)	11(5.4)
합계	206	83(40.5)	83(40.5)	35(17.1)	4(2.0)	205(100.0)

문 16. 귀하는 통일이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표 24> 통일 예상 시기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5년 이내	6~10년 사이	11~20년 사이	21년 이상	불가능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3(1.5)	15(7.4)	19(9.3)	20(9.8)	11(5.4)	68(33.3)
청년층	67	3(1.5)	13(6.4)	23(11.3)	19(9.3)	9(4.4)	67(32.4)
중장년층	59	6(2.9)	16(7.8)	24(11.8)	7(3.4)	5(2.5)	58(28.9)
노년층	12	0(0.0)	5(2.5)	2(1.0)	2(1.0)	2(1.0)	11(5.4)
합계	206	12(5.9)	49(24.0)	68(33.3)	48(23.5)	27(13.2)	204(100.0)

문 17: 귀하는 언제쯤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응답자 대다수가 통일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 정도의 응답자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전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나 숙원에서 선택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표시한 응답자 대부분이 청소년층과 청년층에 포함되어 있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부모 역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 다시 말해 역사적 공동체 배경이 희박한 젊은 세대들을 향한 통일 교육이 그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통일에 대한 예상 시기(<표 24>)로는 ‘11~20년 사이’가 가장 많았고(68명, 33.3%), ‘6~10년 사이’나 ‘21년 이상’은 각각 24.0%와 23.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층은 제일 많은 수가 ‘21년 이상’,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11~20년 사이’, 노년층은 ‘6~10년 사이’라고 답하여 연령이 적을수록 통일의 시기를 멀리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27명(13.2%)이 있었는데 이 중 20명이 젊은 세대인 청소년층과 청년층에 속했다.

<표 25> 남북 언어통합 필요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21(10.2)	36(17.6)	9(4.4)	2(1.0)	68(33.2)
청년층	67	24(11.7)	29(14.1)	13(6.3)	1(0.5)	67(32.7)
중장년층	59	20(9.8)	28(13.7)	11(5.4)	0(0.0)	59(28.8)
노년층	12	3(1.5)	7(3.4)	1(0.5)	0(0.0)	11(5.4)
합계	206	68(33.2)	100(48.8)	34(16.6)	3(1.5)	205(100.0)

문 18: 북한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남북 언어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언어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표 25>)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100명, 48.8%)라는 답변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68명, 33.2%)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82%가 언어통합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층과 청년층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는데, 통일의 희망 정도와는 별개로 남북이 어우러져 살아가기 시작한 현시점에 언어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남북 언어통합이 필요한 영역(<표 26>)으로는 ‘어휘(65%)-발음과 억양(41.3%)-언어문화(40.8)-화법과 어문규범’(각 26.7%) 순서였다. ‘기타’로는 ‘정서적 통합’과 ‘통합할 필요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소수 의견이지만 ‘정서적 통합’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회 통합의 궁극적 형태가 구성원들의 ‘마음의 통합’에 있고 언어는 마음의 도구이기 때문이다.<sup>22)</sup> 독일 통일 이후 언어통합 과정에서 겪었던 마음속의 장벽을 반면교사 삼아, 외면과 내면이 하나가 되는 통합<sup>23)</sup>의

22) 이우영·구강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현대북한연구』, 제19권 1호(2016), 270~273쪽.



<표 26> 남북 언어통합 필요 영역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어휘	화법	어문규범	발음과 억양	언어문화	기타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48(23.3)	13(6.3)	25(12.1)	33(16.0)	26(12.6)	3(1.5)	68(33.0)
청년층	67	45(21.8)	23(11.2)	19(9.2)	29(14.1)	33(16.0)	2(1.0)	67(32.5)
중장년층	59	40(19.4)	16(7.8)	8(3.9)	19(9.2)	21(10.2)	1(0.5)	59(28.6)
노년층	12	1(0.5)	3(1.5)	3(1.5)	4(1.9)	4(1.9)	1(0.5)	12(5.8)
합계	206	134(65.0)	55(26.7)	55(26.7)	85(41.3)	84(40.8)	7(3.4)	206(100.0)

문 19: 남북 언어 어느 영역의 통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복수응답 가능)

<표 27> 남북 언어통합 노력 시작 시기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통일 전부터	통일 후부터	언제든 상관없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33(16.3)	12(5.9)	22(10.8)	67(33.0)
청년층	67	45(22.2)	5(2.5)	17(8.4)	67(33.0)
중장년층	59	38(18.7)	7(3.4)	13(6.4)	58(28.6)
노년층	12	7(3.4)	1(0.5)	3(1.5)	11(5.4)
합계	206	123(60.6)	25(12.3)	55(27.1)	203(100.0)

문 20: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남북 언어통합 노력 시작 시기(<표 27>)에 대해서는 과반수(123명, 60.6%)가 ‘통일 전부터’라고 답했는데, 이는 국립국어원<sup>24)</sup>의 조사결

23) 김영길 외, “독일 통일 이후의 언어통합과정 연구,” 319~362쪽, 김해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 교육에의 시사점』.

24)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35쪽.

<표 28> '일상생활'에서 남북 언어통합 기준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북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통합하지 않고 남북한말 자유롭게 사용한다	새로 기준을 세워 통일 한국어를 제정한다	어느 말도 사용해도 상관없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22(10.8)	0(0.0)	21(10.3)	14(6.9)	11(5.4)	68(33.3)
청년층	67	15(7.4)	0(0.0)	31(15.2)	15(7.4)	6(2.9)	67(32.8)
중장년층	59	15(7.4)	0(0.0)	28(13.7)	9(4.4)	7(3.4)	59(28.9)
노년층	12	3(1.5)	0(0.0)	3(1.5)	4(2.0)	0(0.0)	10(4.9)
합계	206	55(27.0)	0(0.0)	83(40.7)	42(20.6)	24(11.8)	204(100.0)

문 21: 남북 언어를 통합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표 29>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남북 언어통합 기준

단위: 명(%)

연령대	집단별 사례 수(N)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북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통합하지 않고 남북한말 자유롭게 사용한다	새로 기준을 세워 통일 한국어를 제정한다	어느 말도 사용해도 상관없다	합계 (무응답자 제외)
청소년층	68	20(9.9)	0(0.0)	14(6.9)	20(9.9)	14(6.9)	68(33.5)
청년층	67	23(11.3)	0(0.0)	16(7.9)	24(11.8)	2(1.0)	65(32.0)
중장년층	59	18(8.9)	0(0.0)	19(9.4)	16(7.9)	6(3.0)	59(29.1)
노년층	12	2(1.0)	0(0.0)	3(1.5)	6(3.0)	0(0.0)	11(5.4)
합계	206	63(31.0)	0(0.0)	52(25.6)	66(32.5)	22(10.8)	203(100.0)

문 22: 남북 언어를 통합한다면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와도 일치한다[‘통일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66.4%)].

남북 언어통합의 기준에 관한 질문에서는(<표 28>, <표 29>) ‘일상생활’과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통합하지 않고 남북한말 자유롭게 사용한다’가 83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새로 기준을 세워 통일 한국어를 제정한다’(66명, 32.5%)가 제일 높은 비율을 보여 남한인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통합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은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이었는데(각 27%, 31%), ‘북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1명도 없어 응답자 모두가 남한의 시각에서 언어통합을 바라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세대 간 흐름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층별 최다 응답으로 다시 묶으면 <표 30>과 같다. ‘통일 희망 정도’(질문 16)와 ‘통일 예상 시기’(질문 17)는 앞서 연령층별 특성을 논의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 연령층에서 같은 답변을 보인 ‘남북 언어통합의 필요’(질문 18)와 ‘남북 언어통합 노력 시작 시기’(질문 2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북 언어통합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공감했고 ‘통일 전부터’ 그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통일 전부터’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마도 ‘지금’일 것이다. 남과 북이 어우러져 살아가기 시작한, 비록 통일 전이지만 통합이 필요한 ‘지금’ 말이다. 이렇듯 남북 언어통합의 ‘언제’라는 질문에 ‘지금’으로 답하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덩달아 시급해진다.

‘무엇을’ 통합할까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남북 언어통합 필요 영역’(질문 19)을 보면, 청소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세 세대가 ‘어휘’를 꼽았다. 흥미롭게도 노년층만은 ‘발음과 억양’, 그리고 ‘언

<표 30> 연령층별 최다 응답(3)

질문 내용 요약*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전체**
남북 언어통합에 대한 의식	질문 16 통일 희망 정도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질문 17 통일 시기 예측	21년 이상	11~20년 사이	11~20년 사이	6~10년 사이	11~20년 사이
	질문 18 남북 언어통합 필요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질문 19 남북 언어통합 필요 영역	어휘	어휘	어휘	발음과 억양 = 언어문화	어휘
	질문 20 남북 언어통합 노력 시작 시기	통일 전부터	통일 전부터	통일 전부터	통일 전부터	통일 전부터
	질문 21 일상생활 언어통합 기준	남한말을 기준으로	남북한말 자유롭게 사용	남북한말 자유롭게 사용	통일 한국어 제정	남북한말 자유롭게 사용
	질문 22 교육·공공기관 언어통합 기준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일 한국어 제정	통일 한국어 제정	남북한말 자유롭게 사용	통일 한국어 제정	통일 한국어 제정

\* 전체 질문 내용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비교를 위해 전체 응답자 중 최다 응답도 제공하였다.

어문화’를 꼽았는데, 이는 노년층은 전쟁 전, 혹은 전쟁 직후 세대로 어휘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개인의 경험을 보태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표준어교실<sup>25)</sup> 수업에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4명의 대학생들이 보조 강사로서 함께 수업을 도왔다. 그때 연구자는 알아들을 수 있

25) 부산 시청이 주관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에서 교사를 지원하여 가장 사회종합복지관과 지사문화회관 두 곳에서 7주간(2017년 10월 21일~12월 2일), ‘자신감 쑥쑥! 표준어 교실’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는 북한말 표현들<sup>26)</sup>을 20대 보조 강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연구자 역시 노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상당수를 유년 시절 할머니를 통해 접했기 때문에 뜻을 쉽게 이해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반면, 보조 강사들은 가능조차 어려운 것 같았다. 어휘가 의사소통의 직접적인 방해요소가 되는 것을 고려할 때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의 어휘 통합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해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다음으로 ‘어떻게’ 통합할까의 문제는 ‘일상생활’과 ‘교육 및 공공기관’으로 영역을 구체화하여 통합의 기준을 물었는데, 전체적인 답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는 통합의 과정 없이 남북한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후자는 통일 한국어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연령층 간에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보인다. <표 30>에서 보듯이, 청소년은 두 영역 모두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냈고 후자의 경우 ‘통일 한국어 제정’과 공동 답변, 중장년층은 두 영역 모두 남북한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원했으며, 노년층은 두 영역 모두 통일 한국어를 제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의 통합 필요를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노년층에서 사적·공적 영역 모두에서 통일 한국어를 제정하자고 한 것이 이채롭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말을 기준으로 언어통합을 하고자 하는 의견은 두 영역 모두 전 연령층에서 1명도 없었다. 남북 언어통합의 무게 중심이 남한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 있는 것이다. 거시적인

---

26) 예를 들어 남한의 ‘가르쳐서 알게 해 주다’라는 표현을 북한에서는 ‘배워주다’라고 하는데 연구자가 어린 시절 노년층을 통해 자주 들던 표현들이다(예, “공부 배워주는 선생님께 잘 해야지”).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남북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언어통합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지만, 두 언어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한 언어통합은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용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남한말, 북한말이 아닌 더 나은 한국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아울러 한국어는 이제 남북한만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발돋움하고 있음 또한 잊지 말고 합리적인 언어통합 방향을 찾아 나가야겠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보겠다.

#### 4.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방향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 언어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말과 그 말의 화자인 북한인, 그리고 남북 언어통합에 대한 남한인들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또 연령층별로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공동의 방안을 제안하되, 연령층별 적용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첨언을 하도록 하겠다.

우선 남북 언어통합 노력의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에서 협력의 주체인 남한인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논문 전체를 통하여 계속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남한인들은 통일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하나센터 등 유관 기관에서 통일 교육을 간헐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대상 역시 북한이탈주민들로 국한될

때가 많아 여전히 북한인들의 남한 정착 과정의 연장일 뿐 남한인들의 상호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남한인들이 북한말 학습 의향<표 9>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는 하나, 바쁜 시간을 쪼개어 북한말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빼곡한 일과나,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일삼는 직장인들의 분주한 일상을 생각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일상에 스며드는, 일상을 찾아가는 언어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일상에 스며드는 언어통합’이란, 남북 어휘 용어집이나 화용 사례 집 등의 소책자를 비치하는 것 같은 일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북 교과 용어집이 될 것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이민 생활을 해 본 자녀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수학이든 물리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한국 학교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영어로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 학습지 회사들은 과목별 한국어-영어 용어집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탈북 청소년들도, 그리고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음악 시간에 ‘트라이앵글’과 ‘멜로디언’을 가져오라고 할 때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삼각철’과 ‘입풍금’을 연상할 수 있겠으며, 미술 시간에 ‘팔레트’와 ‘스케치북’을 가져오라고 할 때 ‘조색판’과 ‘도화책’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교실에 비치된 이런 교과 용어집은 비단 탈북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남한 청소년들에게도 북한말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로 인해 북쪽에서 온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남북 학자 간에 통일 사전 편찬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남북한인이 이미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영역마다, 두 언어 간 다리를 놓아가는 미시적인

측면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일상을 찾아가는 언어통합’의 노력은 일터에 필요해 보인다. 말 그대로 북한어에 대한 소양을 갖춘 교사들이 탈북민이 속한 일터를 찾아가서, 남한인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혹은 남북한인 함께 세미나 혹은 오리엔테이션의 형태로 직업 분야와 관련된 남북 주요 어휘,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나 편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남북한 화행 차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한두 번의 짧은 교육을 통해 남북한 화행의 차이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일터에서 남북한인 간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북한 사람은 이렇다’, ‘남한 사람은 이렇다’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편견으로 치달을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을, ‘남북한 간 화행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언어 문화적 차원의 이해로 바뀌 줄 수 있을 것이다.

구동서독 통합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게으른 오시(Ossis)와 오만한 베시(Wessis)”<sup>27)</sup>라는 말은 독일 통일 이후 물리적 장벽은 무너졌으나 구동서독인 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심리적 장벽을 드러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sup>28)</sup>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인은 북한이탈주민을 향해 자신이 실수한 일에 핑계나 변명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인들이 솔직하게 말하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사과 화행’<sup>29)</sup>의 차이와 ‘거절 화행’<sup>30)</sup>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27) 이해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푸른숲, 2000), 218쪽.

28)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30쪽.

29) 북한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때 외에는 사과를 잘



편견이 의식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휘의 차이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야기하지만 화행의 차이는 이를 넘어 사회문화적 미숙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한인이 더불어 일하는 직장에서 상호 화행에 대한 인지가 요구된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탈북민을 만나는 주된 장소로 꼽은 ‘종교단체’, 더불어 ‘사회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상을 찾아가는 언어통합’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례로, 연구자가 다니던 지역 교회에도 상당수의 탈북민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설교자나 소모임 인도자의 발화 속에 다수의 외래어가 포함돼 있고 종교적 스키마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이러한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지도자나 관계자들이, 탈북민들과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북한말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일상적인 북한말과 북한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 줄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에서 제작한 33초짜리 공익광고<sup>31)</sup>처럼 북한이탈주민의 편견을 깰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식

---

하지 않고, 오히려 빈번한 사과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여 꺼리는 반면, 남한에서는 상대에게 불편함을 끼쳤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로 사과하는 것을 선호한다[국립국어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http://edu.korean.go.kr/servlet/controller.myclass.MyClassServlet?p\\_process=StudyHistoryList](http://edu.korean.go.kr/servlet/controller.myclass.MyClassServlet?p_process=StudyHistoryList)(검색일: 2017년 12월 4일)].

- 30) 북한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을 선호하고 남한에서는 간접적인 거절을 선호한다. [국립국어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http://edu.korean.go.kr/servlet/controller.myclass.MyClassServlet?p\\_process=StudyHistoryList](http://edu.korean.go.kr/servlet/controller.myclass.MyClassServlet?p_process=StudyHistoryList)(검색일, 2017년 12월 4일)].

개선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가 해외에서 방영되고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인을 왜곡되게 묘사하는 드라마나 영화 등은 남한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북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또한 정부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통일의식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언어통합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일의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야말로 언어통합을 위한 배양토가 될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통일부)’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며 본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고 제시하였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통일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배정되고 속할 지역 사회의 남한인들, 아니 남북한인들에게 단기, 중기, 장기적인 차원의 통일 교육, 정착 교육, 남북한 언어 교육 등을 제공하고, 또한 남북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통일 놀이 공간, 통일 문화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 
- 31) 광고는 처음 세 명의 인물을 보여주면서 옆쪽에 북한이탈주민임을 암시하는 탈북 연도를 표시하면서 시작한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환자,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받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이 차례대로 등장한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가려져 있던 오른쪽 화면에서 북한이탈주민 한의사 정일경 씨, 봉사단 방은희 씨, 선생님 김선경 씨의 모습이 나타난다. 은연중에 앞서 왼쪽에 등장했던 환자와 할머니, 초등학생이 북한이탈주민일 것이라 생각했던 남한 주민들의 편견을 깨뜨리는, 그래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익광고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pvZUD5Mz44g>(검색일: 2017년 8월 17일).
- 32) 강동완, “통일문화컨텐츠 발굴과 활용방안: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학술회의 발표문(2017년 11월 20일), 17~30쪽.

끝으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 언어통합의 다각적 접근과 협력이다. 남북한 언어통합은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그리고 다문화적 접근을 요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남북한 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 그리고 다문화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남북 언어통합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어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앞으로 남북 언어통합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해 나감에 있어 남북한 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 그리고 다문화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접수: 11월 1일 / 수정: 12월 5일 / 채택: 12월 12일

## 참고문헌

### 1. 국내 자료

#### 1) 단행본

강현석 외,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서울: 글로벌컨텐츠, 2014).

권순희 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국립국어원 기획(서울: ㈜도서출판 하우, 2012).

\_\_\_\_\_,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1: 공공생활』, 국립국어원 기획(서울: ㈜도서출판 하우, 2012).

\_\_\_\_\_,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2: 문화생활』, 국립국어원 기획(서울: ㈜도서출판 하우, 2012).

\_\_\_\_\_,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3: 개인생활』, 국립국어원 기획(서울: ㈜도서출판 하우, 2012).

김혜순,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 교육에의 시사점』(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김현경,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과주: KSI 한국학술정보㈜, 2009).

신명선 외,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국립국어원 기획(서울: 박이정, 2012).

이성만, 『미디어 언어의 텍스트 화용론』(서울: 경진, 2012).

이혜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과주: 푸른숲, 2000).

#### 2) 논문

권순희,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현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4권 10호(2014), 561~586쪽.

권재일, “남북한 어휘 단일화,” 『새국어생활』, 제25권 4호(2015), 107~124쪽.

김기호 외, “남북한 방승 언어의 운율 특성 비교 연구: 억양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제32권 3호(1996), 511~532쪽.

김영길 외, “독일 통일 이후의 언어통합과정 연구,” 『독일어문학』, 제15권(2001),

- 319~362쪽.
- \_\_\_\_\_,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제76권(2007), 141~172쪽.
- 김응모, “남한에서 북한어 교육,” 『교육논총』, 제2권(2000), 27~54쪽.
- 문금현, “남북한 어휘의 이질화 양상,” 『어문학』, 제3권(2004), 65~91쪽.
- 박시균·권병로, “남북한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 『국어문학』, 제38권(2003), 29~54쪽.
- 박종갑, “남북한 주민의 의사소통 장애요인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51권(2007), 1~42쪽.
- 박종민·이창환, “한국어 분석 프로그램(KLIWC)을 이용한 남북한 방송극의 언어문화 구조 차이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2권 3호(2011), 5~30쪽.
- 신석환,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동질성 회복 방안,” 『사립어문연구』, 제11권(1998), 5~24쪽.
- 양수경,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1~172쪽.
- 이용재 외, “남북한 방송언어의 음향·음성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모음의 음가를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28권 1호(1997), 153~178쪽.
- 이우영·구강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현대북한연구』, 제19권 1호(2016), 269~310쪽.
- 이주랑, “북한이탈주민의 요청 화행 수행 양상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1~81쪽.
- 이현복, “북한말의 발음에 관한 음성학적 고찰,” 『새국어교육』, 제45권(1989), 18~22쪽.
- 전정미,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제43권(2017), 209~236쪽.
- \_\_\_\_\_,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제27권(2010), 245~272쪽.
- 제은주, “한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거절화행 실현 양상 비교연구”(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1~108쪽.
- 최경은, “통일 이후 동서독 독일어의 통합과정,” 『독일언어문학』, 제21권 9호

(2003), 55~79쪽.

### 3) 기타 자료

강동완, “통일문화컨텐츠 발굴과 활용방안: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학술회의 발표문(2017.11.20.), 17~30쪽.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2016), 1~164쪽.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신(新) 한반도 평화 비전,” 독일 쾰른버 재단 초청 연설문(2017년 7월 6일), 2쪽.

양수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말하기(구어) 특징과 자료활용 방법,” 국립국어원 북한이탈주민 연수교재(2014), 17~37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edu.korean.go.kr/servlet/controller.myclass.MyClassServlet?p\\_process=StudyHistoryList](http://edu.korean.go.kr/servlet/controller.myclass.MyClassServlet?p_process=StudyHistoryList)(검색일: 2017년 12월 4일)

북한이탈주민이 배우는 표준발음교실(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edu.korean.go.kr/dp/banner/pronounce/home.html>(검색일: 2017년 10월 29일)

통일부 2017년 9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self>(검색일: 2017년 12월 12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탈북민 인식개선 공익광고, <https://www.youtube.com/watch?v=pvZUD5Mz44g>(검색일: 2017년 8월 17일)

## The Study on Inter-Korean Language Integration based on Age-group Research

Cho, Youn Chu(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has researched South Koreans' perceptions on North Korean language, people, and the inter-Korean language integration, with an aim of finding directions for one Korean language. This is to meet the need of South Korea's current situation, which is pursuing integration before unification due to 30,000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countr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nalyzed according to age groups, contributing to the generational language integration process.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has noticed that the burden of language adaptation leans toward to N. K. refugees, and thus it argues that the North and South Koreans should cooperate for the purpose. It also suggests that we need not only governmental macro-perspective approach but also ordinary micro-perspective approach for that. In addition, to establish plans for the inter-Korean languages integration, experts in the related fields should make

multilateral efforts together.

Keywords: inter-Korean language integration, North Korean refugee,  
language perception, age-groups, Korean unification